
 금융위원회	<div>보도해명</div> <div> 힘내다 대한민국</div>			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5.26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비상금융과장 이진수(02-2100-1650)		담 당 자	홍재선 사무관 (02-2100-1652)

**제 목 : 은행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에 대한
신규 자금지원 실적은 이차보전대출 이외에 자체적인
신규 자금지원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**
**[한국경제신문 5.26일자 「코로나 대출 ‘숫자’ 미스터리」
보도에 대한 설명]**

1. 기사내용

- (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에 대한) 시중은행이 담당한 신규대출은 19조 1000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.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‘코로나19 대출’ 관련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.
- 금융권 관계자는 “앞서 발표된 1,2차 코로나 금융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두 뜯어봐도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 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조5000억원이 전부”라고 말했다. 금융위 발표 수치(19조1000억원)와 간극이 크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은행권에서는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 실시(4.1일) 이전인 2.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신규대출, 만기연장, 이자납입유예 등의 방식*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.

* 신규대출 : (3.10일) 0.7조원 → (4.13일) 9.0조원 → (5.15일) 19.1조원
만기연장 : (3.10일) 1.0조원 → (4.13일) 10.1조원 → (5.15일) 23.3조원
이자납입유예 : (3.10일) 2.6억원 → (4.13일) 137억원 → (5.15일) 318억원

- 또한 「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」을 체결
(‘20.3.25)하여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에게
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,
 -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
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잔액도 ‘20.2월
에서 4월까지 3개월간 29.9조원 증가하였고, 매월 그 증가규모가
상당폭 확대되어 왔습니다.
- ※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 (한국은행 「2020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」(‘20.5.12일))
· 중소기업 : (2월) 5.3조원 → (3월) 8.0조원 → (4월) 16.6조원
-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서를 활용
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
지원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,
-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(5.15일 기준 19.1조원)은 이차보전
대출 실적(1.6조원) 이외에 2.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
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(17.5조원)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‘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
이뤄진 3조5000억원이 전부’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
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	---	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